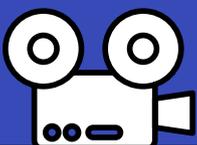


#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시(時)를 통해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 찾기



2018 | 방성준 | 극영화 | 24분



교사용  
교육자료

## 영화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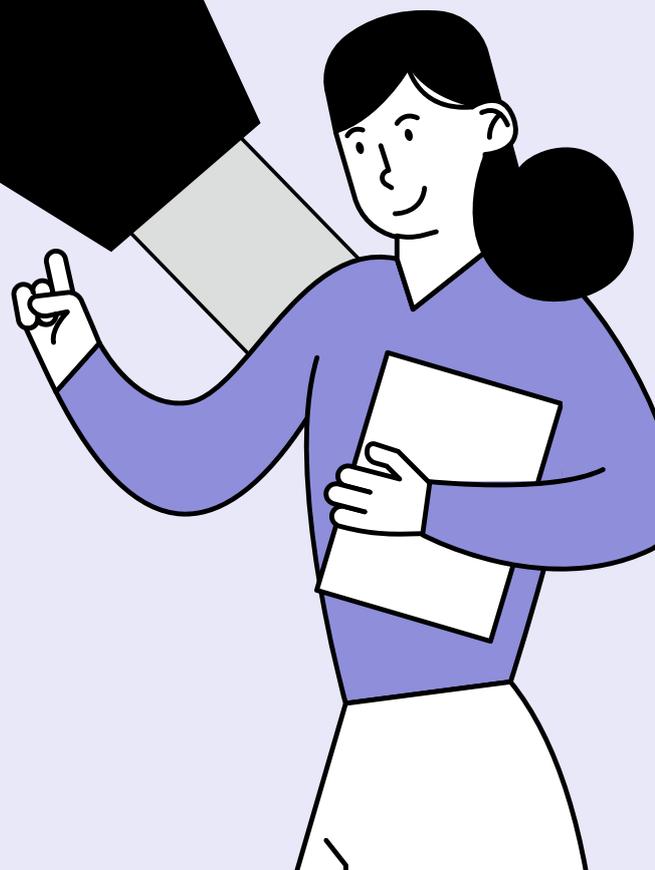
김정숙 할머니는 시집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으로 한글을 공부합니다. 이 시집을 낸 시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정숙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옮겨 적은 할머니는 아들이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에 찾아가습니다. 시를 이정표 삼아 아들의 흔적을 따라나선 그곳에서 아들이 보았던 풍경과 머문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 영화의 교육적 의미

이 영화를 보고 각자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의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과 극복 과정을 표현할 시적 언어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영화 정보

단편영화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은 제22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외 9개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제17회 미장센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과 제16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대상, 제18회 전북독립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 교실로 들어간 독립영화

## 감독이 선택한 한 장면 (시퀀스)



SCENE NO	타임코드	장면설명 (연출의도, 인물의 감정 선 등)
----------	------	-------------------------

S # 22

19:10 ~ 19:50

우연히 만난 선화의 말을 듣고 아들인 한도원 시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장면

## 이 장면을 선택한 이유

감독 방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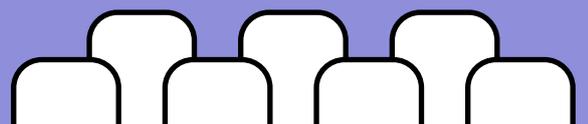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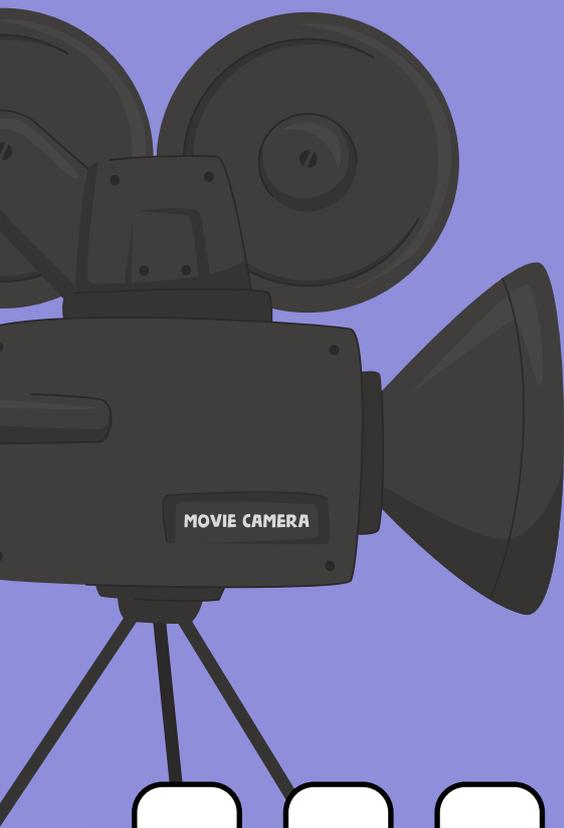
영화를 찍을 당시 변중희 배우의 연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정숙은 선화라는 친구의 입을 통해 요절한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다.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클로즈업인 마지막 장면을 위해 감정을 남겨두어야 했다. 아들을 향한 감정을 유예했다는 점에서 배우도 나도 '참 잘 참았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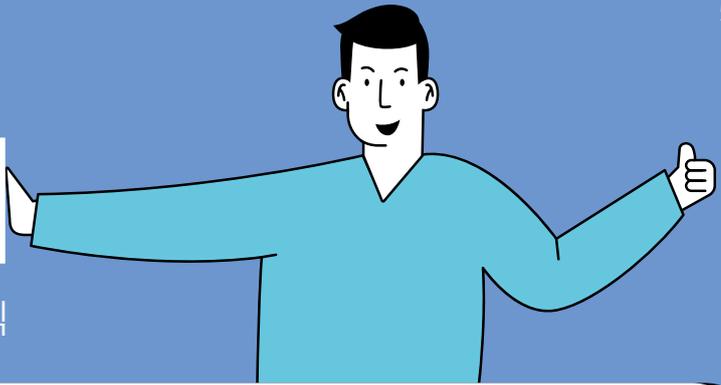
## 함께 보면 좋을 독립영화

- **시인 할매** : 이종은 감독/2019/86분/한국/다큐멘터리 - 평생 글을 모른 채 살아온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는 모습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 **나는보리** : 김진유 감독/2020/110분/한국/극영화 -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족 사이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한살 보리의 이야기.
- **반짝이는 박수 소리** : 이길보라 감독/2015/80분/한국/다큐멘터리 - 청각장애가 있는 부부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입과 귀를 대신해 세상과 소통해야 했던 건청인 자녀의 모습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 **패터슨** : 짐 자무쉬 /2017/118분/미국·프랑스·독일/극영화 - 아내와의 저녁 식사, 애완견 산책과 동네 바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 등 매일의 일상을 시로 기록하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이야기.



# 수업준비

다양한 수업을 위한 보편적인 배경지식



## 감정 언어 확장하기

많은 심리학자는 감정을 섬세하게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감정표현 불능증(alexithymia)'이 우울증을 비롯해 고혈압, 편두통, 심각한 이명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도 하지요. 그러니 자기 경험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 언어를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묻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에 관해 배웠다”라던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을/를 깨달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감정을 기록하고 의미를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런 연습은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고 내면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정리된 나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다면 문학작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던 감정의 이유를 문학작품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요. 실제로 작가들은 특정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위해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고민합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단어를 하나하나 다듬는 과정을 거치지요. 아래 인터뷰에서처럼 <그 언덕을 오르는 시간>의 방성준 감독도 한도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한도원이라면?”이라고 상상하며 영화 속 시를 수십 번 고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작가가 오래 고민한 작품 속 표현을 익히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속 시인 한도원은 가상의 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시인과 시집인 것처럼 몰입하게 되었는데요.

모티브로 삼은 시인과 시가 있나요?

방성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는 기형도 시인의 어머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집의 표지도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에 덮어 사용했고, 쓰인 ‘오후 3시의 절망’이라는 시도 기형도 시인의 ‘오후 4시의 희망’이라는 시의 제목을 오마주했지만, 가상으로 만들어진 한도원이란 인물과 시들이 존경받는 시인의 명성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한도원은 기형도 시인과 조금 다른 인물로 그려지길 원했기 때문에 영화 속 시를 쓰며, 차라리 ‘한도원이 나라면?’ 하는 생각을 무던히 했습니다. 탈고를 거듭하며 한도원은 저 자신과 닮아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집 표지 일러스트도 제 옆모습입니다. 영화 속에 나온 시는 총 세 가지이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언덕을 배경으로 한 시를 쓰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수십 번 고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집은 다시 펼쳐 볼 수 있지만, 영화는 지나가면 다시 돌려볼 수 없기에 쉬우면서도 청각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잘 전달할 어휘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발췌: [네이버 인디극장] 신예의 탄생 인터뷰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687015&memberNo=37183548&vType=VERT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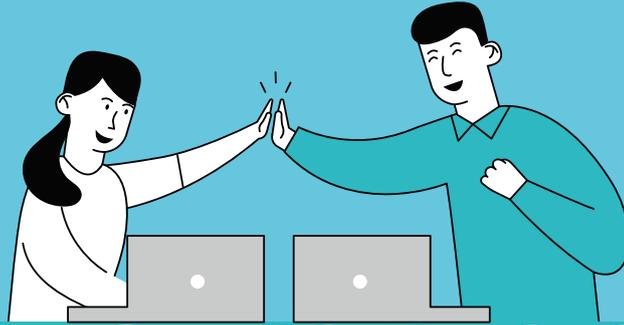
### 문학작품을 활용한 감정표현 활동

함께 제공되는 활동은 영화 이해하기와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 찾기입니다. 2개의 활동 모두 주로 '시(時)'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 번째 활동 '시(時)를 통해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 찾기'의 경우 소설이나 수필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매개로 확장하여 응용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으며 공감이 가는 문장이나 단락을 기록하고, 왜 공감이 갔는지, 그 문장이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꾸준히 기록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을 위해 작은 노트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양의 읽을거리를 미리 정하거나 독후감과 같은 형식을 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기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수많은 언어를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서적 :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 워크시트 활동 가이드

영화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에서 시를 읽는 김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와 끝없이 펼쳐진 밀밭 언덕, 죽은 아들이 보았을 풍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어머니의 모습은 관객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넘어야 할 ‘언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감독의 연출 의도처럼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언덕을 함께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시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할 언어 확장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활동구성

■ 활동 목표 : 시(時)를 통해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 찾기

■ 활동 방향 : 활동은 크게 영화 이해하기와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 찾기의 2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1과 활동 2는 가능한 순차적으로 연결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활동 2를 별도로 진행한다면 학생들에게 영화 속 ‘언덕’의 의미를 사전에 상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활동 중 일부는 개인적 이야기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참여자, 참여자들 간의 관계 형태에 따라 개인의 경험 공유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활동 1. 영화 속 인물들의 상황과 감정 이해하기

: 간단한 질문에 답하며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해보는 활동

활동 2. 시(時)를 통해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 찾기

: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다양한 시집 속의 시와 연결 지어 생각해보는 활동

### 유의사항

■ 이 영화는 모든 연령대의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극영화입니다. 하지만 적은 대사와 롱테이크 등의 영화적 흐름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감상 및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작 배경, 즉 감독이 기형도 시인의 어머니가 한글을 배우셨다는 뉴스를 보고 ‘죽은 아들의 시를 읽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나 연출 의도를 미리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영화 감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 1



영화 속 인물들의 상황과 감정 이해하기

- 난이도 : 15~18세
- 소요시간 : 60분(영화 감상 시간 포함)
- 준비물 : 활동지와 필기도구
- 활동 가이드 : 이 활동은 영화 속 인물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김정숙 할머니가 읊었던 시들을 천천히 읽으며 감독이 의도한 ‘언덕’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독립영화 <그 언덕을 오르는 시간>을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해봅시다.

영화 속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그 이유를 포함해주세요. 2-3줄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



---



---



---



---



---



---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도원 시인의 시 중 가장 마음에 든 시는 무엇인가요?**

아래 제시된 3개의 시를 천천히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든 시를 고른 후, 고른 시의 아래에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시 속의 공감이 가는 문장이나 단어로부터 자신의 경험이나 마음을 연결 지어 생각하면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화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속 시와 장면이>**



**서 있기를 어리석게**

뜨거운 날에 기대어  
 붉은 우체통은 울어댄다.  
 네모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울분이어

하얀 벽에 무너지듯 쌓아 올린  
 그날의 낮은 이리도 뜨거웠다.  
 쏟아질 듯 위태로운 오지 않을 날

푸른 앞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시 말을 윈다.

**위 시를 고른 이유**



뜨거운 날 붉은 우체통이 울어댄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 시인은 왜 그런 기분을 느꼈을까? 요즘 나의 기분도 그렇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화가 나고 슬프다. 교실에 앉아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영화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속 시와 장면 02>



오후 3시의 절망

호수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네  
 매미가 운다는데  
 나는 길 잃은 사람처럼 울었네

쏟아지는 태양 아래 증인처럼 앉아  
 나는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나

오후 3시  
 호수 앞 매미가 운다네

위 시를 고른 이유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provided for the user to write their reasons for selecting the poem.

<영화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속 시와 장면 03>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보이는 것이 많아져  
한참을 주저앉아 시를 씁니다.

꽃잎이 진 자리에 밤이 오면  
눈마저 감고

그때마다 당신은 나를 부릅니다.  
적막을 뚫고 오는 종소리

언덕을 밀어내며  
나는 일어나 길을 오릅니다.  
생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위 시를 고른 이유



영화의 제목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독의 연출 의도를 읽어보고, 영화 속 한도원 시인과 김정숙 할머니의 ‘언덕’은 무엇이었는지, 그 둘은 각자의 언덕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함께 생각해봅시다.



“각자의 삶 속에 넘어서야 하는 ‘언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언덕을 통과한 그녀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길.”

- 방성준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감독



### '언덕을 지나는 시간'의 의미

언덕을 오르는 건 내리막길이나 평지를 걷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과 그 일을 지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 같다.

### 김정숙 할머니의 언덕과 지나온 방법

- 아들을 잃은 일
- 한글을 공부해 아들의 시를 읽고,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는 등 죽은 아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극복해나가는 것 같다.

### 시인 한도원의 언덕과 지나온 방법

- 자신이 느끼는 세상을 가장 가까운 엄마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했던 것
- 자신이 보고 느끼는 세상을 시로 쓰며 위로받았던 것 같다.

활동 2



시(時)를 통해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 찾기

- 난이도 : 15세~18세
- 소요시간 : 60분(영화 감상 시간 미포함)
- 준비물 : 활동지와 필기도구, 교과서 혹은 다수의 시집
- 활동 가이드 : 활동 1과 연결하여 진행하면 좋습니다. 만약 별도의 활동으로 진행한다면 먼저 영화의 제목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김정숙 할머니와 한도원 시인의 ‘언덕’은 무엇이었는지 질문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영화 속 ‘언덕’의 의미를 상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를 다양한 시와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언덕’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언덕’을 오르는 시간을 어떻게 지낼 수 있었나요?

나에게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떠올려봅시다. 외롭고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는지, 누군가를 잃었거나 이해받지 못해 슬펐던 경험은 없는지 떠올려 본 후, 당시에 있었던 일, 내가 느낀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기 위해 무엇을 했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등을 간단히 적어봅시다. 2-3줄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언덕’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셨다. 그때 혼자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당시에 느꼈던 감정과 생각

밖이 깜깜해지면 조그만 소리에 도 깜짝 놀라곤 했다.  
무섭고 외로웠다. 온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그 시간을 지나기 위해 했던 일

집 구석구석이 시야에 들어오는 거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TV를 봤다.  
TV를 틀어놓으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무서워지면 누워서 울기도 했다.  
그 무서움을 떨쳐낼 방법을 그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Blank text area for ref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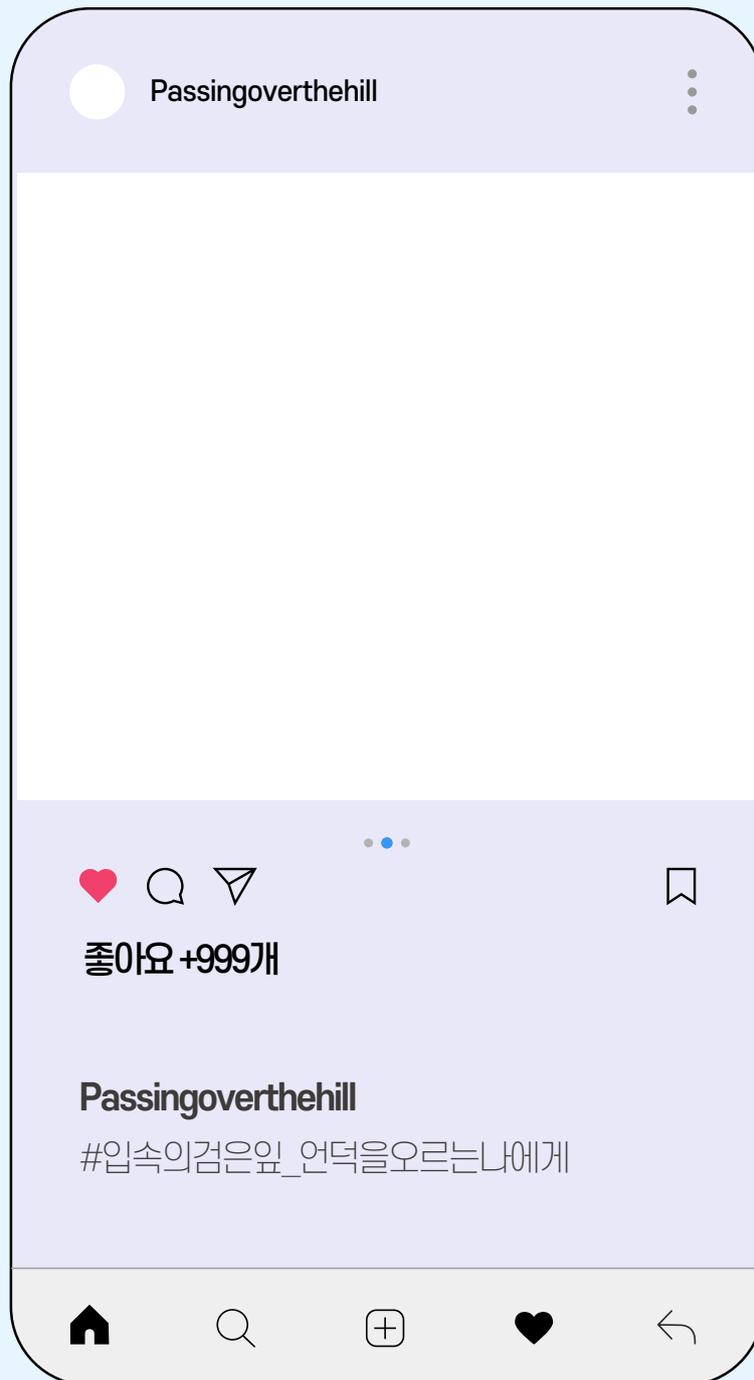
**마음에 드는 시집을 찾아라!**

‘언덕’을 오르는 나에게 건네주고 싶은 시집을 찾아보세요.

우리 집 책장 어딘가도 좋고, 학교나 가까운 동네 도서관도 살펴봅시다.

마음에 드는 시집을 찾았다면, 시집의 표지를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옮겨보세요.

왜 그 시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유도 함께 적어보면 좋습니다!





# 인디그라운드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 교육자료



**연구수행기관** 미디어액트 (www.mediact.org)  
**집필** 경희령 (미디어교육자 / 완주미디어센터)  
김경태 (영화이론 박사 / 한국퀴어영화사 공동저자)  
장문정 (미디어교육자)  
정수현 (서울경일초등학교 교사)  
정은지 (서연중학교 교사)  
채다혜 (인천중산초등학교 교사)  
최현경 (미디어교육자)  
황다경 (미디어교육자 /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자문** 김정수 (국립통일교육원)  
박이현 (문화연대)  
전길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구사업진행** 인디그라운드 (www.indeiground.kr)  
**연구주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 지원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

**발행인** 김영진  
**발행일** 0000.00.00

**영화진흥위원회**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전화** (051) 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kr

**디자인** 디자인 리바운드

본 교재는 독립·예술영화 미래 관객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와 미디어액트가 협력하여 기획, 개발한 것으로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활용을 금합니다. 교재에 실린 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